

챔스필드 관람석 교체 속도낸다...“휴식기 60% 목표”

광주시, 사업비 6억여원 투입, 내달 말까지 전면 교체
강 시장, 작업 현장 격려 “KIA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광주시가 프로야구 올스타 휴식기를 맞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관람석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휴경기가 없는 오는 16일까지 휴식기 동안 공정률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관람석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정비현장을 점검하고 야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폭염에 고생하는 야외근로자들을 근무 환경을 살피며 휴식·폭염 예방 물품 비치 여부, 50분 작업 10분 휴식, 온열질환 징후 발현 시 즉각 작업 중지 등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또 프로야구 KIA타이거즈 팬들의 관심인 챔피언스필드 관람석 좌판, 등판, 컵홀더 등 교체 작업현장을 직접 살폈다. 광주시는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입해 변색과 파손 등 노후화된 관람석 1만6천24석을 전면 교체하고 있다.

디자인과 색상은 기존과 같지만 새 것으로 산뜻하게 교체한다. 광주시는 특히 프로야구 올스타 휴식기 동안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 공정률 60.8% (9천907석)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상 등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 8월 말까지 관람석 교체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 시장은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 현장점검에 앞서 이날 오전 광주시 16개 관계부서, 5개 자치구가 참석한 가운데 ‘폭염대응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 시민안전에 최우선한 ‘폭염대책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전날에도 도시철도2호선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 연이을 폭염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강기정 시장은 “관람석 전면 교체로 더욱 새로워질 챔피언스필드의 기운을 이어받아 KIA 타이거즈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광주시는 시민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경기를 보며 환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찾아 챔피언스필드 관람석 좌판, 등판, 컵홀더 등 교체 작업현장을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야외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시 제공>

‘잔루 693개’...도약과 추락 사이 현주소



득점권 집중력 아쉬움 ‘파괴력 반감’ 팀 상승동력 ‘발목’...최형우 OPS 리그 1위 위안

“기회는 많았지만, 점수는 부족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전반기, 주축 선수들의 이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특히, 6월에는 15승 2무 7패 (승률 0.682)로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승률로 반등 흐름을 이끌었다. 중심 타선의 활약과 백업 자원의 분전, ‘한 방’의 증가도 긍정적인 신호였다. 9월 기준, 전반기 한 경기를 남겨둔 KIA는 45승 39패 3무 (승률 0.536)로 리그 4위에 올라 있다. 순위는 고정됐지만, 그 이면엔 농진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KBO 자료에 따르면 KIA는 전반기 87경기, 총 3천422타석에서 683개의 잔루를 기록했다. 이는 10개 구단 중 KT (709개), 롯데 (701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타석 대비 잔루 비율도 20.2%로, 리그 평균 (19.6%)을 웃돈다. 공격 기회를 자주 만들었지만, 그만큼 농진 장면도 많았다는 의미다. 득점 찬스를 점수로 연결하는 집중력과 결정력 부족은 각종 타격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KIA의 현재 득점권 타율은 0.257 (7위), 출루율 0.347 (8위), 장타율 0.379 (6위), OPS 0.726 (6위)로, 찬스 상황에서의 타격 지표 대부분이 리그 중위권 수준에 그쳤다. 전체 타율 0.262 (4위), OPS 0.748 (3위)와 비교해도 득점권 상황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다소 떨어진다. 개별 타자 중에서는 최형우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득점권 OPS 1.197 (리그 1위), 장타율 0.707 (2위), 타율 0.347 (9위)를 기록하며, 주요 지표 대부분에서 리그 상위권을 차지했다. 모두 득점권 상황에서의 수치다. 반면, 리그 홈런 2위 (20개)에 올라 있는 위즈



KIA 박찬호가 지난 1일 열린 SSG와의 홈 경기에서 폭투를 틈타 2루를 홈치고 있다. <KAI 타이거즈 제공>

덤은 득점권 타율 0.247 (리그 33위)로, 찬스 상황에서 다소 조용한 면모를 보였다. 한 방은 많았지만, 찬스를 해결하는 적시타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도 따른다. 팀 전체적으로도 공격 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점수로 연결되지 못한 경기들이 누적되며 승률도 5할 중반에 머물렀다. 보다 높은 순위를 노릴 수도 있었던 전반기, 효율성 부족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결국, 공격은 팀 승리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타율과 출루율이 높아도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다행히 후반기에는 김도영, 김선빈, 나성범 등 핵심 자원들의 복귀가 예정돼 있다. 공격의 연결고리와 파괴력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다.

2025 시즌 10개 구단 잔루 기록 <9월 현재>

팀명	잔루
KIA	693
삼성	661
LG	689
두산	661
kt	709
SSG	641
롯데	701
한화	587
NC	623
키움	666
합계	6,631

KIA 타선이 후반기에는 보다 날카로운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홍철 기자



김호령이 지난 5일 열린 롯데와의 홈 경기에서 만루포를 터뜨린 후 포효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호령, 생애 첫 올스타전 무대 선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호령 선수가 오는 12일 열리는 2025 KBO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이는 팀 동료 최형우 선수의 부상 불참에 따른 대체 발탁이다. KBO는 10일 “나눔 올스타 베스트12 지명타자로 선정된 최형우 선수가 부상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팬과 선수단 투표에서 나눔 올스타 지명타자 2위를 차지했던 한화의 문현빈 선수는 이미 감독 추천 선수로 올스타전 출전이 확정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KIA의 김호령 선수가 새롭게 감독 추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김호령은 올 시즌 4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5 (144타수 41안타), OPS 0.804, 득점권타율 0.317을 기록하며 맹활약 중이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잇몸 야구’를 펼치고 있는 KIA에서 그는 공수 양면에 걸쳐 팀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의 깜짝 올스타전 출전이 팬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홍철 기자



화랑기 양궁대회에서 선전을 펼친 광주체고 선수들. 왼쪽부터 송하린, 남지현, 심유한, 박주혁 <광주체고 제공>

광주체고 박주혁 ‘2관왕’·송하린 ‘金 명중’

화랑기 전국 시도 대항양궁

광주 남자양궁 기대주 박주혁(광주체고)이 화랑기 제46회 전국 시도 대항 양궁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박주혁은 지난 9일 전북 임실 오수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고등부 50m에서 347점을 쏴 최철준(강원체고·346점), 박명재(서울체고·344점)를 제치고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박주혁은 10일 열린 30m에서도 357점을 기록하며 공동 2위를 기록한 심유한(광주체고·355점)과 최철준(강원체고·355점)을 따돌리며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고등부 60m에서는 송하린(광주체고)이 344점으로 김민정(대전체고)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광주체고 남지현은 여자고등부 50m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335점을 쏜 남지현은 김민정(대전체고·342

점), 유슬하(전북체고·336점)에 이어 정서는(예천여고·335점)과 공동 3위에 자리했다. 박주혁은 10일 올림픽라운드로 치러진 개인전에서 결승에 올랐다. 박주혁은 64강에서 고범찬(경북체고)을 세트스코어 6-4, 32강에서 김병진(경북고)을 6-5, 16강에서 노지원(대전체고)을 6-0, 8강에서 팀 동료 배정원(광주체고)을 7-3, 4강에서 박정우(부산체고)를 6-0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오는 12일 김태현(효원고)과 금메달을 다툰다. 여자고등부 개인전에서는 순천여고 조한이가 결승에 진출했고, 광주체고 남지현은 동메달을 확정했다. 조한이는 김서윤(부개고), 김시우(순천여고), 양가는(부개고), 강민진(경주여고), 김예인(부산체고)을 상대로 전 경기를 모두 세트스코어 6-2로 잡아내며 결승에 진출, 김민정(대전체고)과 여고부 최강을 다툰다. /박희중 기자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 교류전, 완도서 개막

장애인체육 상생과 화합을 위한 ‘2025 제주-호남권 장애인체육회 교류전’이 10-11일 완도에서 열린다. (사진) 이번 교류전은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120명이 참여해, 체육 교류를 넘어 상호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17년부터 이어진 교류전은 지역 장애인체육의 연대 기반을 다지는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행사는 ‘완도 방문의 해’에 맞춰 완도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실내 체육활동과 지역 탐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육 교류를 넘어, 지역 간 장애인체육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 확대, 저변 강화 등의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호남과 제주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협력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